

退溪學에 있어서 道德과 社會正義**

옥 숙 김 (Oak-sook Kim)*

1. 序 論

16세기 조선조의 정치적 도덕적 혼란상을 학자들과 반대자들에 대한 광범한 핍박으로 특징지워졌다. 퇴계는 19세 때 己卯土禍를 겪었고 42세 때 乙巳土禍를 체험했다. 50세의 나이에 퇴계가 모든 공직에서 은퇴하여 新儒學 연구에만 전념하려고 결정한 것은 지적인 신념 뿐만 아니라 그의 도덕적 확신도 내포되어 있다.

신유학의 학풍과 철학이 퇴계의 시대에 주조를 이루고 있었는데 신유교의 전통이 전사회 모든 분야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목표·가치·습관 등을 지배하고, 지시하고 유지시키는 면에서 그러했다.

퇴계와 그의 동시대 신유학자들은 公務와 학자적 노력을 제공하는 임무를 떠맡고 있었으나 현대의 학자들과는 달리 그들은 또한 지방의 풍습, 가정 일, 인간생활의 사건들을 다루는 온갖 형태의 祭式의 분야에서 포괄적인 지시와 봉사를 제공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이 논문은 현대사회에서 인간성과 정의에 대한 지성인의 도덕적 책임의 중요성과 온갖 종류의 정치적 사회적 불의를 경감시키려는 그들의 노력과 관련해서 퇴계의 도덕철학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저작은 퇴계의 저서들이 16세기에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지성

* 하버드대학 연구원

** 이 논문은 제 12회 퇴계학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것임.

퇴계학 연구원, 「퇴계학보」 제 68호(1990) 게재논문.

인들을 추구한 바와 같이 오늘날의 지성인들을 추구한다.

이 논문은 현대의 모든 관심있는 지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신유학 철학자들간에 갱신되어야 할 도덕론을 최초로 개념화해 보려는 것이다.

2. 退溪 道德哲學의 정치 사회적 함의

신유교 대철학자로서의 퇴계의 업적은, 분명한 세계관·형이상학·윤리규범·현세적 문제 등에 대한 가르침 등을 내포하는 특유한 도덕철학을 그가 엄중하게 해명한 면에서 나타나 있다. 비록 신유학이 한국·중국·일본의 역사를 통하여 정치제도와 교육기관 등과 전통적 유대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퇴계가 신유학의 도덕철학에 관하여 내린 정의는 모든 사람이 현명한 사회와 인간 세상을 추구하는 참여와 주로 관련되어 있다. 그리하여 그의 도덕철학은 각계각층의 개인들이 그들 사회를 분석하고 인간화 시키는 데 책임을 지도록 촉구한다.

퇴계에 의한 신유학 도덕철학은 구체적이고, 특수하고, 한정된 실존적 현상의 맥락에서 현실을 파악하는 특유한 방법에 근거하고 있다. 퇴계에 있어서 그러한 특유한 철학과 세계 파악의 방법은 사람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그와 세계와의 상호관계를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다. 더구나 이 특유한 도덕 철학의 이해여부의 진실성은 그 논의의 타당성이나 학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 상사를 다루는 그의 행동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퇴계철학의 중요한 일면으로서 그의 전사상체계의 비판적 원칙을 나타낸다. 그리고 따라서 이것은 그의 도덕철학에 관한 모든 수준의 논의에서 퇴계학의 궁극적 관심사로서 유지되어야 한다.

세계의 모든 실체들을 설명하는 두 가지 범주로서 원칙인 理와 물질적인 힘인 氣의 의미에 관한 퇴계의 철학적 논쟁들은 신유교에 있어서 다대한 학문적 연구성과를 가져왔다. 과연 주희에 의하여 체계화 되고

퇴계에 의하여 재확인된 신유학의 理氣論은 신유학의 지성과 도덕성 전체를 그 철학적 기초로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정의와 도덕은 물론이요, 人性·人心·人知 등의 문제에 관한 퇴계의 논의는 언제나 이기론과 상호 연관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기론에 관한 퇴계의 치밀한 사고와 체계화는 신유교의 지혜의 최고 관심사이며 목표가 다름 아닌 인간 실존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도덕성과 정의라는 것을 극명하게 해명했을 뿐만 아니라 입증하였다는 점이다.

퇴계는 신유교 철학에서 理는 본질적으로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입장에 항상 서 있었다. 인간의 실존에서 알게 되고 경험되어지는 원칙인 理는, 언제나 氣와 상호의존하고 있다. 원칙인 理는 인류의 인간성, 각 개인의 단일성과 상호 관련성, 마지막으로 세상 만민의 대조화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理의 추구에 대한 퇴계의 궁극적 관심이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사회 안에서 인간성과 정의에 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려 하는 그의 도덕철학을 받쳐 주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그리하여 퇴계의 체계에 있어서 氣보다 理를 우위에 놓는 의미는 형이상학적이거나 존재론적 개념의 견지에서 해석될 수 없다.

퇴계는 존재론적 심사숙고를 신유교 철학에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 노력을 위하여 그의 학문의 많은 부분을 투자하였다. 주희와 그의 학문 체계에 대한 퇴계의 비길 바 없는 학식은 퇴계가 이 방면에 완벽할 철학자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주희가 신유교 체계를 형이상학적 구별을 함으로써 철학으로서 확립한 반면, 퇴계의 최대의 관심사는 도덕적인 것이었다. 퇴계가 인간실존에서 理가 탁월하고,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동력이었음을 주장한 것은 다름 아닌 인간실존에서 도덕적 고려의 우위성에 관한 그의 주장인 것이다. 구체적이고 한정된 실존의 현세계 가운데서 들어내 보인 理는 원칙이며 진리이고, 생명력이며 구원의 은총으로서 모든 인간사회의 본질과 운명을 지배하고 만들어 내며, 더 나아가 규정해야만 하는 것이다.

퇴계철학에 있어서, 모든 개인들이 그들 생명의 모든 문제에 관한 최대의 호기심과 관심을 지니도록 촉구하는 格物은 지적, 문화적 중요성은 물론이요 정치적, 사회적 함축성까지도 포함했다. 퇴계에 의하면 세계에 관한 인간적 물음들은 인간성 자체의 실존적 표현이며, 그것들은 그들 나름대로 인심의 지적 활동을 통하여 표현되고 깨달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격물을 통한 인간의 완성은 진정한 지식과 이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인간의 無知 뿐만이 아니라 세계와 자신의 인간성에 대한 인간적 이탈과 무관심을 경감시키고자 한다.

인간성은 모든 인간의 본래 具有하고 있는 선과 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단언하는 신유교의 金言을 퇴계는 재확인했다. 신유교 철학에 있어서 인심에서의 인성의 원래의 천성은 네 가지 기본적 미덕, 인간성, 정의, 예절, 지혜의 견지에서 정의된다. 퇴계는 모든 인간들은 그들의 인간성을 최고도로 개발하여 실현시킬 수 있게 하는 이 미덕들을 원래 구유하고 있음을 재확인 하였다. 따라서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는 것은 가장 진지하게 理를 이해하려고 노력함을 뜻하며 이의 추구는 人道에 어긋나지 않고 정의로운 사회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퇴계는 주로 그의 거대한 학문적 업적과 현인으로서의 뛰어난 일생으로 말미암아 다른 신유학 철학자들과 구별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세와 절박한 학식을 지니고 구체적 인간사에 관하여 언급하는 그의 무진장한 능력이 그의 신유학 도덕철학의 토대를 이루는 기본적 관심사가 세상의 사회정의에 대한 그의 필생의 추구하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점이다.

3. 道德性과 사회주의와 지식인

퇴계의 도덕철학은 인간성과 이 세계의 사회정의를 그들 자신의 도덕

적 책임으로 포함시키는 현대의 지성인에게 도전하고 있다. 그가 그의 필생의 업적과 그가 도야한 모든 것이, 지금 당장 인도에 어긋나지 않고 정의로운 세계를 실현시킨다는 단 한 가지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다고 적었을 때 그는 큰 모험을 했던 것이다. 이 말의 뜻은 학자들에 대한 박해가 횡행하던 시대의 관직을 떠남으로써 정부의 미움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는 그 당시 학자들을 괴롭히던 문제들을 언급하기 위하여 그들과 서신 왕래를 하기로 결심을 하였으며, 이 노력을 그의 학문체계를 수립하는 일보다도 우위에 두었다. 그의 철학적 서한에서 제시된 바처럼 그의 논쟁에서도 언제나 표현된 엄격함과 동시에 정확함은 도덕성에 대한 그의 끈덕짐을 나타낸다. 비록 철학적 賓辭가 아무리 하찮은 것처럼 보이나 할지라도 그가 그것들을 옹호할 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철학적 논쟁들은 인간실존 실제의 모든 수준에 영향을 준 도덕성과 사회정의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안토니오 그람시(1891~1937)는 그가 말년에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기간 중에 썼던 대작을 통하여 20세기 현대의 인도주의적 관심사의 유산을 남겨 주었다. 그람시의 저작들은 다년간 현대의 사회과학자들에게 도전을 했으며, 이를테면 그의 맑시즘 비판은 거창한 학문적 논문인 동시에 풍부한 학문 논의의 주제가 되었다.

그람시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지성인이자 철학자가 될 수 있도록 수양할 수 있는 천부적 재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중요한 賓辭이다. 이 말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성공하도록 교육받을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그 사회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지도하도록 촉구한 것이다. 그람시는 철학을 광범한 인류의 사상 위주의 성결과 활동을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만인은 철학자다. 즉 직업적 또는 기술적 철학자와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 차이점은 질적인 것이 아니라 양적인 것이다라는 원칙이 우선 확립되어야 한다.”고. 여기에는 그람시의 가장 중요한 공헌, 즉 가장 가난한 농부나

노동자라 하더라도 상당한 양의 지식을 아직 개발하지 못한 철학자이긴 하지만 철학자라는 생각이 깃들어 있다.

퇴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람시에 있어서도 인간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정치적 사회적 정의와 도덕성이라는 맥락에서 그의 정치적, 지적 노력을 꼬치꼬치 검토하는 것을 의미했다.

퇴계는 그가 말년에 농촌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지방관서를 위한 규칙, 규약들을 수집했다. 이 문제들에 대한 퇴계의 저서들은 그 당시 농촌 지역의 생활상을 반영한다. 왜냐하면 홍수와 다른 재해 등과 같은 천재지변은 빈곤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인간불행의 큰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퇴계가 그의 저서에 포함시킨 한 주목할 항목은 이 재난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는 사람이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이 상황으로부터 몸을 도사린다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할 죄악이라고 적었다.

4. 結 論

도덕성과 사회정의의 문제는 이퇴계의 신유교 철학 연구에 매우 중요하다. 퇴계의 저서에는 詩, 聖人論, 俗人들과는 먼 것처럼 보이는 지성인에 관한 철학론 등이 내포되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퇴계의 도덕철학에는 중요한 도덕적 통찰력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 주려고 노력하였다. 진지한 철학자들과 퇴계의 도덕철학 학자들에 의하여 포용되어지는 선택은 물론이요 선택의 자유는 더 이상 애매모호할 수 없다. 퇴계의 도덕적 명령은 학문적 관심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사회의 도덕과 사회정의를 염려하는 현인으로부터의 자비와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 시대의 지성인들과 철학자들에 의하여 포용되어야만 할 것이다. 퇴계의 사상에서 인간다운 인간이 되려면 인간성·정의·타당성·지혜의 네 가지 미덕을 최고도로 도야해야 되는데, 그 말의 뜻은 불의를 보고 비켜나는 것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람시와 같이, 퇴

계는 조직적인 지성인을 양성하여, 그 다음엔 그 조직적인 지성인들이 대중들을 더 한층 교육시키고 계몽시키는 일의 중요성을 신봉하였다.

우리가 우리 사회에 팽배하여 있는 비인간성과 불의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인간성은 이 세계에 유지되어 있다. 16세기 한국의 이퇴계와 20세기 이태리의 안토니오 그람시와 같은 스승들 때문에 인간성은 유지되는 것이다. 퇴계의 도덕철학은 조선조 세계의 신유학 학자들에게 도덕적 기초를 제공해 주었는데, 그것은 그 당시 세계의 도덕성과 사회정의의 현실을 촉진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람시의 도전은 우리에게 훨씬 더 심각한 것이다. 우리는 퇴계의 세계보다는 그람시의 세계와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 인류 자신의 비인간성과 탐욕의 고도로 불순하고 숨쉴 수 없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인간의 불행·빈곤·핍박 등이 증가함을 목격하게 된다. 이 비인간성의 행동들은 반지성주의, 소비주의, 전체주의 등의 다양한 형태로는 물론이요 경제확장, 국가주의, 개인주의적 번영권 등의 견지에서 사람들에게 이익을 준다는 위장하에 사람들에게 제시된다. 그러나 그람시의 경고들을 명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의 포부라는 맥락에서 우리는 비인간성과 사회적 부정의 작용을 저항하고 막아주고, 패배시킬 선택권을 가진다. 현대의 철학자들과 지성인들은 그들 자신의 정치적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며, 그람시는 이 선택들이 인간성과 사회성의 헤게모니를 창설한다는 맥락에서 의미하는 바를 입증했다.

(유 철 준 譯)